

올리브 나무 _ live

트러스트무용단

춤으로 다시 보는 심계 연작 마지막편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올리브나무 _ all live

2007. 11. 14^(수)~15^(목)

오후8시

서강대학교 메리홀

트러스트무용단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마지막편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올리브나무 _ all live

안무 김형희 Kim Hyeonghee

연출 김윤규 Kim Yungyu

2007년 11월 14일(수) - 15일(목) 오후 8시

서강대학교 메리홀

주최 트러스트무용단

주관 TDC기획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DC후원회

아름다운 춤세상

www.esangdance.net

예매 티켓링크 1588 7890

www.ticketlink.co.kr

문의 트러스트무용단 02 879 0613

www.trustdance.com

5년에 걸친 3편의 연작은 그리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계의 그 본의미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오늘날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해 낼 것인가는 저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습니다.

연작의 첫 작품이었던 "데칼로그"는 그 말뜻 자체가 '십계'입니다. 본래의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였지만 제목은 연작의 첫 번째라는 의미와 아울러 당시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온 지구가 아파하던 때문이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 저희 무용단의 10주년 공연에 올려진 "해당화"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율의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트러스트의 작업 속에는 그동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실천해 나가는지 매번의 작업 속에 녹아있었습니다. 13년간 이어져온 춤사위에서, 주제 의식에, 창작방법에서, 공연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트러스트의 춤 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데칼로그", "해당화"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그려진 세 개의 연작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중히 받아 안아야 할 계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산통도 컸지만 그 보다 기쁨과 보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었고 연작들을 통하여 작품세계를 든든히 세워주는 기둥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연습과정에 물러섬 없이 열정을 보여준 춤꾼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트러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저희의 작업에 애정과 박수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올리브나무"처럼 늘 여러분과 우리들의 이야기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연작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마지막편을 준비하며...

트러스트무용단 예술감독 _ 올리브나무 안무, 김형희

십계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작품이자 그 완결편인 **“올리브나무”**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혹은 “네 이웃에 대해 ~하지 말라”의 계명이 전하는 오늘날의 진실에 관한 고민이며, 우리의 존재에 관한 성찰과 자유를 위한 노래다.

십계가 담고 있는 오늘날 의미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십계가 단순히 금하고 명하는 율법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인간 존재에 관한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어릴 적 무심코 불렀던 동요 ‘라 쿠카라차’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종락- 라 쿠카라차~ 희한하다 그 모습”처럼 희한하게도 ‘라 쿠카라차’의 뜻은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 한다. 남미 혁명의 역사가 숨겨진 노래인 동시에 끊임없는 생명의 행렬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편 작품의 제목인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 원산으로 그 열매는 지중해지역 흔히 볼수 있는 나무로 그곳 사람들의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창세기편에 의하면 죽음의 대홍수 이후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냈을 때 물고 돌아온 첫 생명이 올리브가지였다.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는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사랑받는 나무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이 두 존재는 스쳐지나간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고통 또한 잘 알고 있을 법하다.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정해진 죽음으로의 행진을 그 만큼 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십계의 의미 또한 그 운명을 넘어섬에 목적이 있다. 인간의 존재적 진실과 그것으로 부터의 해방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소리에도 소통되지 않는 언어 그리고 우리가 초를 세는 것과 다른 시간, 그리고 한발두발 거리를 재어봄과 다른 공간으로부터 가해지는 변칙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작품속의 장면들은 서로 상관이 없거나 혹은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있는 장면들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인 **“올리브나무”**가 그런 것과 같다.

먼 나라의 이야기 혹은 나와 상관없는 뉴스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 편이다. 우리 또한 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그렇게 작품은 나와 무관한 듯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늘날 언어와 시간 그리고 공간은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며, 그 속에 십계의 현재성이 존재한다.

십계의 부정형 ‘~말라’는 우리에게 ‘~하라’의 긍정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열 가지의 계율을 두 가지의 계율로 당대에 맞게 고쳐 전한다.

그 중 하나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다. 이 율법은 이번 작품의 실질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웃은 세상사람 누구에게나 있다. 물론 여기서 나의 이웃은 가까이 지내는 옆집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지리적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너희의 “몸”과 같이 하라는 더 중요한 이정표이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품은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작품은 이제 십계에 담긴 인간의 존재론적 진실과 오늘의 메시지를 “몸”이라는 이정표를 통해 찾아가고 있다. 몸은 역사이며, 올리브이며, 바퀴벌레와 같이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어와 시간 그리고 공간속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무시무종의 그런 것이다. 우리의 운명으로 자리 잡은 철조망은 곧 몸과 같아 넘을 수 없는 구조물로서의 장치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철조망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당신 또한 철조망 안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를 서로의 한계와 운명이라는 틀 속에 존재하게 된다. 언어와 시간 그리고 공간이 서로 다를 뿐이다.

올리브나무는 중동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올리브 열매는 모든 사람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수많은 죽음의 뉴스들처럼 그것이 우리의 주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같이 ‘라 쿠카라차’의 가사처럼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작품은 이 행진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인간의 탐욕을 끊을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이제 남은 것은 남은 자의 몫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형상대로 흠으로 빚어 한 인간의 코끝에 생명을 불어 넣고, 그의 아들 예수가 떠나며 모든 인간에게 성령을 선물해 줌과 같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언어, 그렇게 살아 존재하고 역동하는 시간과 공간이 내 안에 있음과 그로부터의 자유를 알아채는 것은 남은 자, 곧 우리의 몫이 된 것이다.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십계의 계율은 신이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다.

몸을 통해 얻는 사랑, 그 불완전의 존재적 완성, 그것이 곧 오늘날 십계에 숨은 인간의 존재적 진실이자 **“올리브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춤으로 다시보는 십계 연작 마지막편 _ **올리브나무** 연출, 김윤규

이 작품은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는 비극에 관한 것이다. 작품의 주제이며 동시에 실제 비극의 주인공인 “올리브나무”는 그 본래의 표기와 달리 함께 산다는 의미의 “All Live” 라 표기했다.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의 세 번째이자 완결편이다. “올리브나무”_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앞서 두 번에 걸친 연작에 담지 못한 십계의 오늘날 의미를 담았다.

가까이로는 분단과 분열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터, 멀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주변은 너무도 많은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한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늘 목격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무감해져 가는 우리는 과연 살아있거나 한 것인가? 존재론적 죽음과 존재론적 죽음, 이것은 뉴스 속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며, 그로 인해 우리를 또한 죽음인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며,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많은 올리브나무가 찢겨지고 꺾여지는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속에 올리브나무는 죽어가고 그 자리는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눈물과 분노 그리고 공포와 웃음이 공존하고 있고, 이처럼 죽음이 드리워진 곳으로 부터 인간은 더욱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미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은 잉여의 반복이며, 남아도는 것이 우리의 속을 파먹고 있다. 누군가가 제공하는 뉴스 속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잃는 것에 익숙해져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보인다. 바로 잉여에 의한 비극이다.

누가 올리브 나뭇잎 물어 우리에게 내일을 전해줄까? 초라해진 우리의 살림살이는 뒤로하고, 그저 고인 물이 흐르게 하는 정도로 세상이 훨씬 맑아지듯, 저 메소포타미아의 비극과 한반도의 아픔을 어루만져 좀 더 나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슴 깊숙이 올리브나무를 심는다.

“함께 산다는 것” All Live... 올리브나무의 죽음은 부정적인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를 올리브나무는 전하고 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the reality of division and disagreement in Korea, to the barriers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the fighting that takes place every day is one of the real tragedies of this world. Are we really alive, even as we are being anesthetized by a waterfall of tragic news from all over the globe?

Tree: All Live is the last work in the Ten Commandments series and uses the tenth, “Thou shalt not covet,” to reflect the commandments’ modern meaning, which was not contained in the previous two works, Dekalog (2003) and Continuant (2005).

Tree: All Live is the last work in the Ten Commandments series and uses the tenth, “Thou shalt not covet,” to reflect the commandments’ modern meaning. The previous two works in the series, Dekalog (2003) and Continuant (2006), dealt with commandment five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six (Thou shalt not murder). title of Olive Tree: All Live is a play on the word “olive,” which comes to mean “all live,” according to the themes dealt with in this work, television, online and on our way through life people are killing their neighbors, their classmates, themselves. Our death, too, is present in these events.

Tree: All Live is a symbol of abundance and peace, a sign of hope connecting our past with our future. many, this symbol has been cut down and cast aside. In Israel and in Palestine, as the fighting continues, the olive trees that once grew in abundance are being destroyed and replaced with a high wall of division that no one seems able to climb. as seemingly conflicting elements - tears and anger, fear and laughter, - coexist in our daily lives, we see that it is possible to be reborn, even as we are placed under the shadow of death. Today we live only one day and another; we have no future.environment heaps repetitions upon redundancies; it eats at our very souls.news is killing us, isn't it? have gotten used to loss, though there is nothing left to lose.our redundancies breed more tragedies, as more leaves fall from olive trees.will pick them up and transport us to the future? our households are carelessly abandoned,understand the truth of cleansing the worldmaking flow the stagnant water.we believe that if we plant a live treein our minds,better way will open before usrelief from the pain of the Korean Peninsulathe sorrow of Mesopotamia. death of an olive tree is not an end,a new song, bringing new life.the olive trees are trying to send a message,we shamelessly cut them down, live. All live together.

안무

김형희 Kim Hyeonghee

연출

김윤규 Kim Yungyu

연주

연리목 Yonrimog

옴브레 Ohmbre

심은용 Shim Eunyung

김영수 Kim Youngsoo

출연

이신영 Lee Sunyoung

최진한 Choi Jinhan(지구댄스씨어터 단원)

박재영 Park Jaeyoung

김정현 Kim Jeonghyun

김재빈 Kim Jaebin(지구댄스씨어터 단원)

주정민 Joo Jungmin

김효신 Kim Hyo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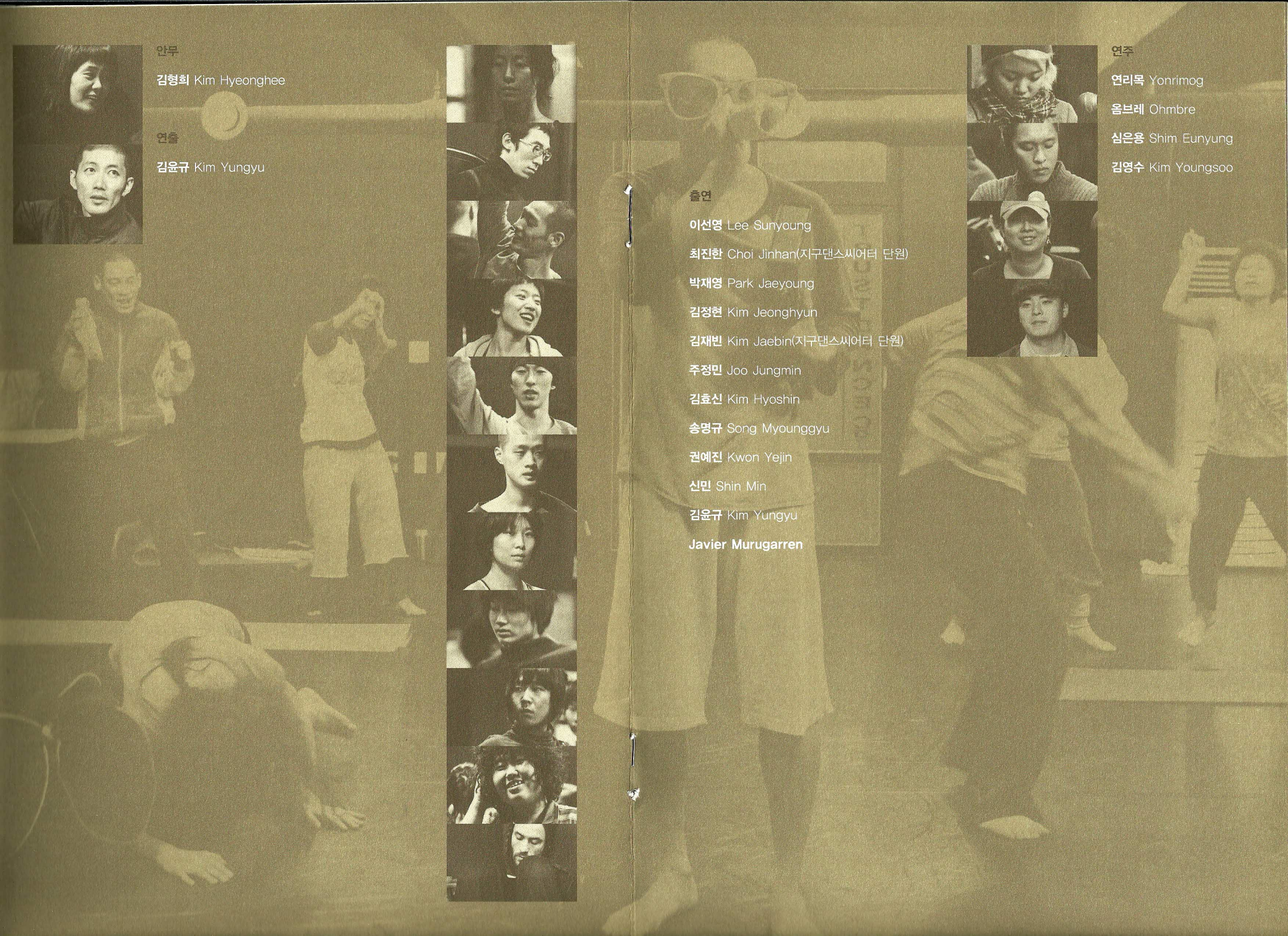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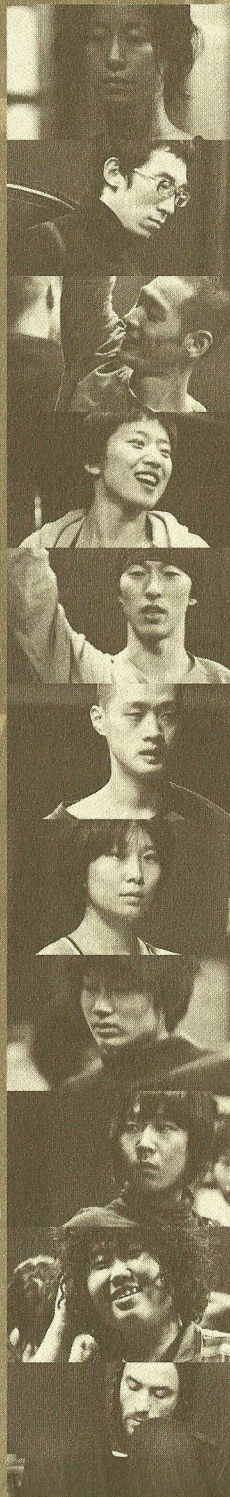
송명규 Song Myounggyu

권예진 Kwon Yejin

신민 Shin Min

김윤규 Kim Yungyu

Javier Murugarren



2007 트러스트 정기공연 연작 십계 완결편 "울리브나무"(서강대 메리홀) |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무용교육_ 움직임의 빛 (트러스트 스튜디오 진행중) | 한터 수교 50주년 기념 초청공연 "숫나기" (오페라하우스/터키 앙카라) | 아시안 아트마트 2007 쇼케이스 참가 "숫나기" (싱가포르 Esplanade Theatre Studio) | 제7회 서울 국제즉흥춤축제 네덜란드 맥파이 뮤직댄스컴퍼니와의 합동 즉흥공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2007 트러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춤나들이 공연 (전남 곡성, 충남 아산, 경남 거제) | 네덜란드 맥파이 댄스컴퍼니와의 합동 즉흥춤 공연 (OVERTOOM301/암스테르담)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지원대상 선정 2006 나눔연극제 초청공연 "해당화" | 서울아트마켓 선정 개막공연 쇼케이스 참가 | 하나되는 세상(장애인문화진흥회) 공연 참가 "공감" | 시베리아 야쿠치아 초청순회공연 (유네스코 선정 어사호춤제 참가 및 공로상 수상) | 트러스트 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연작 십계 두 번째 "해당화" (안무 김형희)

2005 우리춤 빛깔 찾기 공연 "랜스케이프" (안무 김윤규) | 티벳 춤 교류 및 공연 (한국문예진흥원 지원)

2004 2004년 무용비평가 선정 올해의 최고무용가상 수상(무용평론가 협회) | 제1회 올해의 예술상 수상 축하공연 "숫나기" (한국문예진흥원) | 제7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 "숫나기" (안무 김윤규)

2003 트러스트 연작 십계 첫 번째 "데칼로그1"(안무/김형희,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2002 기획공연"빛과소금사이"(아롱구지소극장) | 몽골초청 워크샵 쿨란바토르 아라베스크무용정보센터) 2001 독일초청공연 한국, 독일, 브라질 공동안무(중앙에서의 만남) | 상해동방청춘가무단 초청 객원안무 및 워크샵 2000 제1회 몽골국제현대무용제 초청공연 | 일본 초청공연(伊豫三島市, 松山市) | "고향의 봄" 트러스트 공연 (서울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문예진흥원후원 1999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회공연(동해, 포항, 울산, 광주, 부산) | 제10회 사이타마 국제 창작무용콩쿠르 참가(일본) 우수상 수상 1998 1998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트러스트 순회공연 (포항, 울산, 구미) | 1998 트러스트 정기공연 (울산, 부산) | 제6회 바늘레 국제 안무대회 한국예선 참가(서울문예회관) 1997 공단지역 순회공연(포항, 울산, 구미) | 유라시아 초청 순회공연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1997 트러스트 정기공연 (경성대 콘서트 홀) 1996 1996 트러스트 정기공연" (부산 문화회관 대강당) | 창무회 초청공연 "오늘의 춤꾼, 내일의 춤꾼" (서울 포스트극장) 1995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경성대 콘서트홀, 대구문화예술회관) | "제5회 대구무용제" 참가 "라이파이한"(안무/김형희) 연기상 수상(임현미) | 트러스트 무용단 창단

백경선의 즉흥 워크샵 _ Perspective Dynamics

4가지의 기본적인 구조(Sensation, Action, Image, and Emotion)를 이용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습관 등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2007년 12월 3일~7일(5일) 11:00~16:00(5시간), 트러스트 스튜디오

class 1 _ 11:00 - 13:00 _ 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테크닉 클래스-16ways

class 2 _ 13:15 - 16:00 _ Perspective Dynamics를 이용한 연습, 열린 즉흥춤

백경선 _ 즉흥무용가, 안무가, SNDO(School for new dancedevelopment)강사, 맥파이 무용단 단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여러 안무자들과 활동 중

트러스트 무용단 즉흥춤 워크샵

오늘날의 춤에 대한 이해와 춤을 통해 나누며 실천하는 강좌입니다.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19일 수, 토요일 오후 5시, 트러스트 스튜디오

강사 _ 김윤규(트러스트무용단 상임안무)

트러스트 작은 무대 III _ 송년회, 후원의 밤

2007년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트러스트 스튜디오

트러스트무용단 네덜란드 초청 공연 및 워크샵

2008년 1월 10일~21일, 암스테르담 OT301, BIMHUIS



트러스트무용단 Trust Dance Company

151-849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65-1 은혜빌딩
Eunhye B/d, 1665-1, Bongchun6-dong, Gwanak-gu, Seoul 151-849, Korea.
t. 02-879-0613 www.trustdance.com e-mail: gogotrust@hotmail.com